

대형 조형물·야간 개막식 무료 특별전시로 생동감 선사

성년 맞이한 천만 송이 국화축제 20~29일 익산중앙체육공원서

익산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는 '천만 송이 국화축제'가 올해 성년을 맞아 여느 때보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내놓는다.

익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제20회 익산 천만 송이 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축제 20주년을 맞아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전시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불꽃놀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형 조형물과 야간 개막식, 특별전시장 무료 운영으로 축제장 방문객에게

생동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준비한 대형 조형물은 국화 케이크와 익산을 대표하는 국보 미륵사지석탑이 담긴 선물상차다. 시민들과 함께 성장한 국화축제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전시는 도심 곳곳에서 이어진다. 오는 11월 5일까지 미륵사지와 익산역, 신흥근린공원 등 3개 정원에 분산된 꽃 전시가 익산의 늦가을을 장식할 예정이다.

▶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20~29일 열리는 '천만 송이 국화축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낮부터 밤까지 빛나는 천만 송이 국화 축제

올해 축제는 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의 숨은 공간들을 찾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공간 확대가 이뤄진다.

또 국화전시와 어우러지는 화려한 야간조명 연출로 밤까지 빛나는 축제를 구현한다. 늦은 시간에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도 아름다운 국화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따라 쉼터가 설치된다.

북문 입구에는 국화 빛 터널같이 새롭게 조성되고 반딧불이 조명이 나무를 장식한다. 분수대 주변은 은하수 조명과 함께 불꽃을 입은 나무들을 따라 거니는 가을밤 추억의 공간이 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어린이정원에서 대형 달 포토존과 하트 빛 터널, 수백 개의 조명 꽃, 유성우 조명이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는다. 약기 놀이와 버블·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시민참여형 동행 축제

올해 천만 송이 국화축제는 익산시민은 물론 지역 기업·단체·출연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면서 시민참여형 동행 축제로 치러진다.

우수 국화작품이 전시되는 실내전시관에서는 한국농업진흥기술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협조로 익산농업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미래농업관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50여 종의 신품종 국화를 만나볼 수 있다.

분재전시관에서는 현애작 모양작 등 총 200여 점의 다양한 국화 분재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익산국화연구회원들이 1년 동안 재배한 것으로 오는 19일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작품 13점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4개 부스 주재관에서는 지역의 95개 농가·단체·기업들이 참여해 익산을 대표하는 100여 종의 우수 로컬 푸드와 보석을 판매한다. 여기에 △국화꽃 팔찌 △마뚝이 키링 △미륵사지 석탑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먹거리관에서는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와 읍면동 주민자치회원들이 직접 준비하는 저렴한 가격에 특색 있는 착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시래기국밥, 고구마순닭개장 등 맛깔난 향토 음식이 관람객 허기를 채운다.

특히 포스타이프와 (주)하림, 익산주유리체인 등 지역 기업들의 후원과 익산청년물,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BCO융합섬유연구원, 송화동 도시재생협장지원센터 등의 지원으로 다양한 고품격과 색다른 체험이 제공된다.

▲ 풍성한 이벤트와 공연 준비·전국 축제로 도약

이번 국화축제는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보강에 힘을 쏟는다. 스태프 투어 등 풍성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기쁨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사람이 익어가는 가을을 상징하는 축제답게 익산 대표 3대 사랑 이야기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기획됐다. 적국의 공주 선화를 사랑



축제 끝난 뒤에도 11월 5일까지 도심 곳곳 전시

야간조명 연출로 '밤까지 빛나는 축제' 구현

각계각층서 힘 보태 시민참여형 동행 축제로 진행

지역 대표 사랑이야기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 마련



한 서동, 죽음도 불사한 아사달과 아사녀, 신분을 뛰어넘은 소세연과 황진이가 그 주인공이다.

국화축제 사전 홍보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지역 음식점·숙박 업소를 이용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참여 인증 등 온라인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축제장에서 다이로움 카드로 3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만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사와, 익산군산축협·한우·한돈·낙농 협회에서 진행하는 무료 시식의 기회도 마련됐다.

축제의 흥을 돋울 공연도 풍성하다. 축제장 주 무대에서는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관소리 맨스컬 '몽연·서동의 꿈', 니트한지 섬유 패션쇼, 청소년 맨스 경연 대회, 익산문화원 취타대 길놀이, 아

이캔유지원 마칭밴드 공연, 익산시립예술단 공연, 슬리피와 함께하는 부부콘서트'가 열린다.

거리공연 무대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시니과 △알지스 △세미물론 △IP창고 △어쿠스틱 밴드가 채운다.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익산영상미디어센터 재미에서 활동하는 재미브라팀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 핑크 물리 정원에서는 가수 백영주의 프린지 공연이 펼쳐진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994년 센터 주차장에서 시작한 국화전시회가 2004년 천만 송이 국화축제로 새롭게 태어나 벌써 20년이 됐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품격 높은 축제를 준비한 만큼 꼭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